

상해 임정 청사 함평에 재현된다

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와 거리, 숲 등을 전남 함평에서 볼 수 있게 됐다.

함평군은 "함평 출신 일강(一江) 김철 선생이 활동했던 지상 3층 전체 면적 498㎡ 규모의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신관면 함정리에 원형대로 복원하는 '독립운동 역사관' 건립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돼 2010년 말 개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끝조 공사가 끝난 상해 임정 청사 복원 사업은 내외 건축공사와 전시영상관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0년까지 38억원이 투입돼 거리, 숲 등 주변 환경이 똑같이 재현된다.

당시 거리·숲 등 원형 그대로 복원 2010년 말 개관

군은 공사가 끝나면 현재 수집해 놓은 함일운동 관련 사진과 일본군 제복, 화살통, 고문기구 등을 전시해 역사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석형 함평군수와 조용무 군의회 의장은 지난 15일부터, 복원될 기념관 내 각종 집기와 소품을 만드는 중국 현지 공장을 방문해 보안사항 등을 협의하고 상해 마당로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주변 풍경 등 현지 확인 활동도 벌였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전남 중·고 교복 공동구매 3.6% 불과

광주 32%,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정부가 가계부담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복값을 잡기 위해 공동구매 학교 수를 전체의 50%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을 비롯한 일부 시·도는 공동구매 학교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복착용 중·고교 5천105곳 중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학교는 23.4%인 1천193곳(동북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교 659곳 중 361곳에서 공동구매를 실시해 54.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대전(36.6%·145곳 중 53곳), 전북(33.5%·281곳 중 94곳), 광주(32.6%·141곳 중 46곳) 등이 이었다.

광주의 경우 중학교는 81곳 중 36곳이 공동구매를 실시해 44.4%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고교는 60곳 중 16.7%인 10곳만이 공동구매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3.6%·364곳 중 13곳)을 비롯한 강원(7.5%·268곳 중 20곳), 충북(5.6%·197곳 중 11곳), 제

주(2.8%·71곳 중 2곳) 등은 공동구매 학교 비율이 10%도 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전남은 중학교 232곳 중 8곳(3.5%), 고등학교 132곳 중 5곳(3.8%) 등이 공동구매를 실시했다.

한편 (사)한국교복협회가 밝힌 교복 원가(동북 기준)는 대기업 11만원, 중소기업 12만원 수준이지만, 판매가는 대기업 27만원, 중소기업 17만원으로 거품이 심하게 포함돼 있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외국인 고층 상담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한 '재한 외국인을 위한 정부합동 고층상담회'가 17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출입국관리소에서 열렸다. 결혼·유학·취업 희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상담회에 참가한 한 외국여성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IQ 두자리 '군복 용병' 군 기피 행위 아니다"

지능지수가 두자리인 현역 병사가 수차례에 걸쳐 웃에 용병을 본 행위를 놓고 군검찰관이 조기전역을 노린 병역기피 행위라고 기소했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근무기피죄 위계 혐의로 기소된 현역 사병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8월에는 행군 중 군복에 대변을 보는 등 1년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웃에 대·소변을 봤다.

군검찰은 A씨가 조기전역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봐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적용해 기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군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필뉴스

휴대전화 최고 인기 번호는 '1004'

LG텔레콤 접수 최고 경쟁

LG텔레콤은 이달 1일부터 2주 동안 기억하기 쉬운 휴대전화 뒷번호를 일컫는 골드번호 무료 배정을 위해 희망번호를 접수한 결과, '1004'번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17일

밝혔다. 4천450개의 골드번호를 희망고객에게 배정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3만6천700여 명이 응모한 가운데 '1004'번에 가장 많은 3천499명이 몰렸으며, '7777'번(2천835명), '0000'번(2천6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필뉴스

생활게시판

화촉

▲김화주씨 장남 유성식군 조덕중(대한시멘트 대표이사)·임숙형씨 장녀 정수영=19일(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강남구 더 베일리 하우스.

▲박정순씨 3남 관주군 나덕주(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단장)씨 차녀 혜선양=17일(금) 오후 6시 30분 상무지구 예벌루션웨딩컨벤션 2층 라벤더홀.

▲박군수씨 장남 지후군 전형주씨 4녀 혜리양=18일(토) 오전 11시50분 오페라하우스 1층 오페라홀.

▲정종범(정동물병원 원장)·윤연애씨 장남 송훈군 박인석·최숙자씨 장녀 경화양=18일(토) 낮 12시30분 나주성당.

▲최말규씨 장남 송해주(인천시청)군 김중빈(전 전남도의회 전문위원)·채연희씨 막내 미숙(전남도청)양=18일(토) 낮 1시 광주 상록웨딩홀 3층.

▲김오장·장신씨씨 장남 기석군 박득근·고안자씨 차녀 경주양=19일(일) 오전 10시50분 베니스웨딩컨벤션 1층 피오레홀.

▲이건재(용봉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조영자씨 차남 부일군 문석용(서울건설 이사)·조예순씨 차녀 혜영양=19일(일) 낮 12시20분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 1

증 아이비홀.

▲이경원·정처례씨 차남 현수군 위양근(일석종합건설 회장)·서영자씨 차녀 성미양=29일(일) 낮 12시 경기도 동두천 시네파크웨딩홀 12층 스타티스홀, 광주 피로연 23일(목) 오후 5시 30분 동구 동명동 오페라하우스.

부음

▲서복출씨 별세 이의식(사업)·태식(·)·현식(KBS)·윤옥·윤자씨 모친상 김광성(광주 탐외국어사 대표)·하재석(지영업)씨 빙모상=발인 19일(일) 서울 경향병원 장례식장 3호실. 010-3335-7655.

▲윤상만씨 별세 광필·광호·광필씨 부친상=발인 19일(일) 광산구 송정장례식장 1호실. 062-941-4400.

▲백형익씨 별세 승훈(부대주 건설 부부장)·정훈(한국가스공사 팀장)·창훈(포스코)·승희(전 신광여고 교사)·명희씨 부친상 정인철(전 신용보증기금 이사)·박현민(삼성생명 마케팅실 부사장)씨 빙부상=발인 18일(토)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02-3410-6920.

▲정순례씨 별세 백재성·재천·재만·도·재철·영희·은주씨 모친상 안인선·정기해씨 빙모상=발인 18일(토)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인사

◆광주매일신문 ▲경제부 부국장 박준수 ▲정치부 부국장대우 이경수 ▲경제부 부장대우 오성수 ▲정치부 부장대우 김명식 ▲사회부 차장대우 최권범 ▲사회부 차장대우 김재정 ▲사회부 차장대우 박은성 ▲전산운영팀 차장대우 윤재광

우 오성수 ▲정치부 부장대우 김명식 ▲사회부 차장대우 최권범 ▲사회부 차장대우 김재정 ▲사회부 차장대우 박은성 ▲전산운영팀 차장대우 윤재광

대한민국 최초 신진국영 창레시시스템 프리드 현대중합상조 1688-3740

학부모 절반 "자녀 유학 보내고 싶다"

5명 중 4명 "소득에 비해 교육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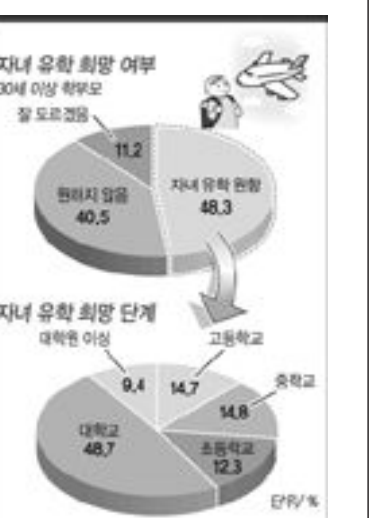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절반 가량은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고 싶어 하며 학부모 5명중 4명은 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먹을거리나 교통사고 등 생활과 밀접한 안전문제에 대해 훨씬 큰 걱정을 갖고 있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국민 4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교육·안전·환경)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학부모 절반이 자녀유학 희망 79.8%로 2000년(73.4%), 2004년(77.4%)에 이어 증가 추세가 계속됐다. 교육비의 부담요인은 보충교육비가 73.0%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00년(58.0%), 2004년(64.8%)에 이어 사교육비가 부담이 계속 커졌다.

◇"먹을거리가 가장 불안하다"=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모든 분야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안전하다'는 답변보다 많았다. 분야별로 '불안하다'는 응답률을 보면 먹을거리(유해식품, 식중독 등)가 6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식량안보(68.6%), 정보보안(65.1%), 교통사고(61.2%), 화재(42.1%) 등이 뒤를 이었고 국가안보(전장기능성, 북핵문제 등)는 32.5%로 가장 낮았다. /연필뉴스

◇"먹을거리가 가장 불안하다"=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모든 분야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안전하다'는 답변보다 많았다. 분야별로 '불안하다'는 응답률을 보면 먹을거리(유해식품, 식중독 등)가 6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식량안보(68.6%), 정보보안(65.1%), 교통사고(61.2%), 화재(42.1%) 등이 뒤를 이었고 국가안보(전장기능성, 북핵문제 등)는 32.5%로 가장 낮았다. /연필뉴스



멜라민 검출 의심 달걀분말 국내 수입

일본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달걀분말과 같은 회사 달걀 가공품이 국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건조 전란분(알 가공품)을 생산한 중국 업체 대련원위식품유한공사(이하 대원위)의 달걀분말의 일종인 '계란분 조제품'이 지난해 1월 이후 1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올해 3월 5t이 수입돼 유명 제빵업체에 공급됐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연필뉴스

광주日報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062) 227-9600 (062) 227-9500

산행 안내 12면 개재

공장매각 4위 치 여수시 월하동 1125번지 (여천산업단지내 위험물허가지역) 대지 1326.7㎡(401평) 건물 제품보관공장 건물있음 아세톤, 페놀 판매 LG화학대리점 (SUS 탱크판매) 구축물 폐쇄저장탱크 80ton 아세톤저장탱크 40ton 현재가동중임 대지외시설을 분리 매각도 가능함 매각금액: 협의조정 문의처: 011-621-2021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담 접수중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시험: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수강료 국가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 236-2468

(주)옥션코리아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압찰장 앞) [부동산] [주거] [아파트] [다세대(별거)] [오피스텔] [농가관련시설]